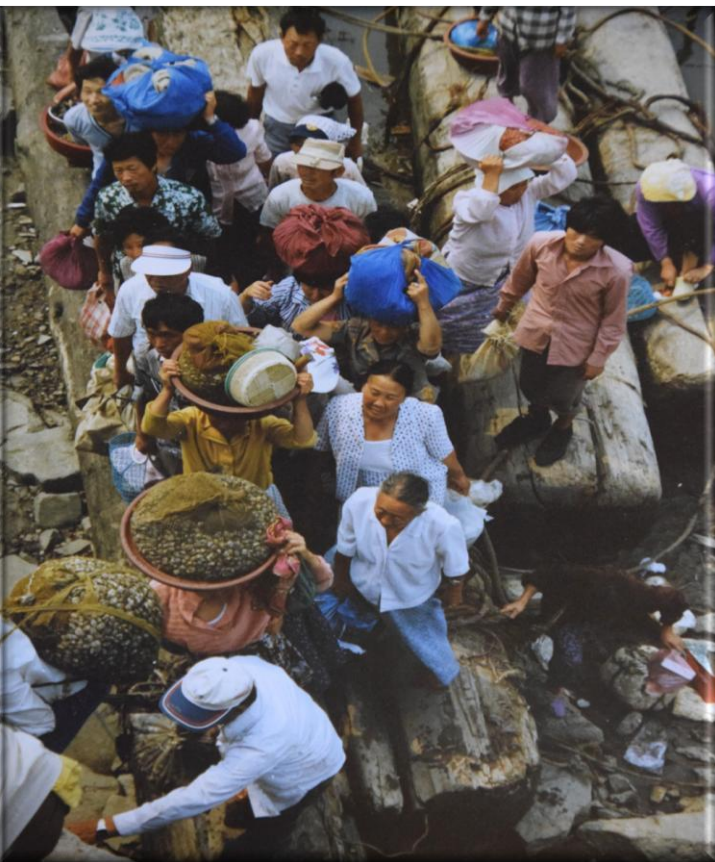




1950년대 후반 만석부두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70년대 북성포구에서 “선상파시” 장면

추천의 글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을 하면서 세계문물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 뒤 오랫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근래 들어 원도심을 중심으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포로 가는 길’ 팀은 센터의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2년째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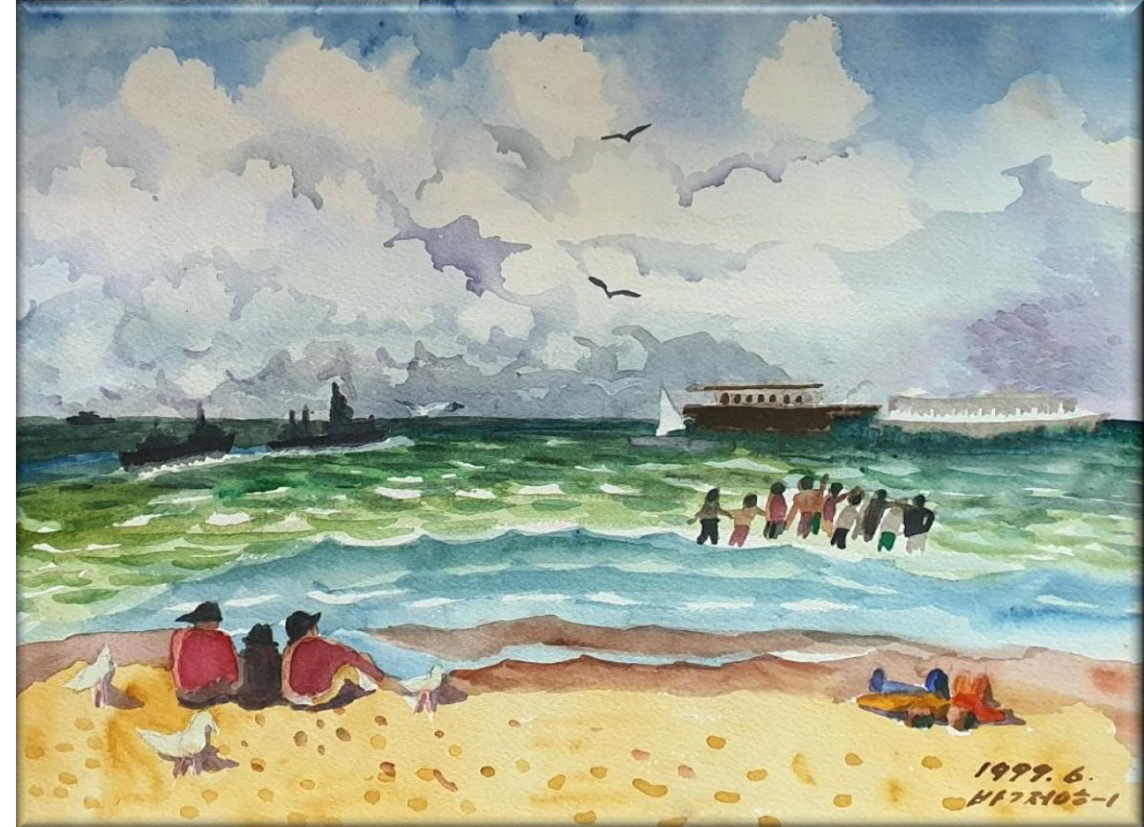
이 팀은 인천의 생명줄 이었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의 과거와 현재를 표명하면서 다시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오셔서 이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인천의 미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전찬기



삼포의 밤



행복 삼포(三浦) 전시회

Happy Samport Exhibition
원도심 발전을 기원하며

2019. 11.5 TUE~11.12 TUE

초대일시 2019. 11. 5 TUE 오후3시



삼포로가는길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인천 동구 송림동 / T. 010-5319-9191



1970년대 북성포구 입구 철로에서

당시는 포구 주변에 산업용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철도역의 시점과 종점은 인천역과 영등포역이었지만, 철로는 삼포로 연결되어서 산업동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풍요(그 시절의 풍요로움을 그리워 하면서...)



50년~ 60년대의 어업의 활성화 당시 목선(만석부두 앞바다)



웃음(아침인사)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닻의 모습

이 사진은 “한성조선” 에서 납품을 대기하고 있는 닻의 모습입니다. (한성조선은 평생을 화수부두에서 닻을 만들어 보급하였던 조선소입니다. 현재는 김포입구에서 운영 중임)



‘삼포로 가는 길’ 초대의 글

우리 ‘삼포로 가는 길’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의 잠자고 있는 원도심을 깨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순수한 지역 주민들의 모임으로 2018년 구성 조직된 단체로서,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에서 우리나라 최초와 최고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평범한 우리 서민의 삶을 조명하고자 “삼포와 평안의원”을 주제로 유영호, 박정희 부부의 삶을 삼포와 같이 조명하며, 박정희선생님의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지금까지 지역을 지키고 평범하게 살아오신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